與 광주시장 후보 경선 오리무중

여론조사 시기 등 못정하고 시간만 보내
지역의원 특정후보 캠프참여 중립 훼손도

5·31 지방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가운데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일정과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오리무중 상태다. 광주시 선거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일찌감치 박광태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하고 세몰이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 '100% 시민여론조사'라는 원론만을 내놓은 채 구체적인 조사방법·시기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즉 ▲여론조사 실시 시기 ▲여론조사기관의 숫자 ▲여론조사 대상 ▲오차범위 내 결과일 경우 승복 여부 ▲여론조사 공정성 보장 방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시점 등 어느 것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행보는 조영택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든지 한달여, 경선 방식을 시민100%여론조사로 확정한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선을 염두에 둔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선거기획단 측에 여론조사 일정 등을 물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28일 열리는 공천심사위에서나 구체적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 선거는 다가오는데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양 후보 모두 본선과 경선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중앙당이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시장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서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후보뿐 아니라 전남지사 후보 진영에서도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쟁관계인 민주당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선거준비를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모 구청장 후보는 "처음에는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20여일을 보내고 이제는 또 경선의 구체적 방법을 놓고 일주일을 보냈다"며 "시장 후보 결정이 안돼 선거전략 세우기도 힘들고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한 시선도 따갑다. 광주지역구 의원들 대부분이 특정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경선 중립을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남지역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떠도는 소문으로는 다음달 10일을 전후로 후보가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본선을 아예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투표율 높여라"

"투표율을 높여라."

5·3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제고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1998년 민선 2기 지방선거 때 45.1%, 2002년 3기 때는 42.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여서 이대로 가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4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
장애우·젊은층 대상 홍보

이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이벤트와 젊은층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계층별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 선관위는 27일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시연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투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다. 특히 광주시 선관위는 장애인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328개 모든 투표소를 1층으로 확보하고 임시 경사를 설치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관위의 공략 대상은 비단 장애인만이 아니다. 새내기 유권자나 노인 등 전방위적이다.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9세 유권자들을 위한 홍보 이벤트가 지난 2월 광주대학교 새내기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지난 3월에는 화교 등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이 주어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투표시연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밖에 선관위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선거와 선관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는 달라진 선거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인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1인 6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노인들의 경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순천 동부웨딩문화원에서 '전남지역 필승결의대회'를 개최, 지방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대표하는 당 되겠다"

한나라 박 대표 전남 필승대회

"호남지역 주민들이 호남의 진정한 대표가 한나라당이라는 답이 나올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호남 구애(求愛) 수위를 한층 높였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안간힘이 엿보인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4번 호남을 찾는 등 각별히 공을 들여온 박 대표는 27일 오전 순천 동부웨딩문화원에서 열린 '전남지역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호남지역 주민들이 호남의 진정한 대표가 누구인가, 호남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당이 어디인가라고 물었을 때 주저없이 한나라당이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정권심판론과 함께 지역 통합의 정치를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나라를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한 현 정부를 심판하고, 전남발전을 이끌어 낼 인물을 뽑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재순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는 "척박한 전남 땅에 튼튼하고 싱싱한 한나라당의 나무를 심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보자"고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박준영후보 "깨끗한 선거로 승리할 것"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27일 "5·31 지방선거를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 도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안겨주자"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목포 '박준영 희망본부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자원봉사자 간담회에서 "선거법도 강화됐지만 무엇보다 도민에게 봉사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도백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로 정정당당하게 승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전남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압승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광양만권 활성화 방안 제시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으로 전주~광양 고속도로 조기 완공, 익산~순천간 등 철도망완비, 2만~5만t 규모의 세계적인 선박수리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 후보는 특히 "광양항과 목포 신항 활성화를 위해 북한을 지나 러시아 철도가 끝나는 폴란드 발부름에 30만평 규모의 대지를 확보해 국제물류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서 후보는 이어 여수시청과 여수교육청을 방문했다.

송하성씨 경선 재심요구 취하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서범석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였던 송하성씨가 경선과 관련 당 지도부에 제기했던 이의신청 및 재심요구를 취하했다. 송씨는 재심의 취하서에서 "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가 발견돼 재심을 요구했으나 우리당이 부여받은 역사적 소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광주 공천자 58명 조영택후보와 연대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공천자 70명 중 58명이 조영택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정책연대에 참여했다고 조 후보 측이 27일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택 동구청장 후보, 김종식 서구청장 후보, 이상갑 광산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광역의원 후보 12명, 기초의원 후보 43명이 정책연대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청과 구청, 또 자치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효율성 예산 확보 및 집행은 물론 정책 우선 순위의 조정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 장성지역위 필승대회

○…민주당 장성지역위원회(위원장 김효석)는 27일 오후 장성군민회관에서 '5·31 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조재환 사무총장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머리숙여 마음으로부터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효석 선대본부장은 "당사를 비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러 난국을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태명 후보 건설현장서 출마 회견

○…민주당 소속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27일 광주시 동구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 현장에서 출마회견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도심공동화 극복의지를 보이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견에서 유 청장은 "문화도시로 우뚝 서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동구에 희망찬 활력을 불어넣는 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동구와 광주를 민주 인권의 성지이자 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며 "충장·서남동 문화중심권 등 7개 권역 특화개발, 23개 구역 재개발사업, 1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9만평 개발제한 해제구역 개발사업 등 동구의 지도를 바꿀 프로젝트 완수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인규 장흥군수 무소속 출마

○…김인규 장흥군수가 27일 무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함에 따라 군수권한이 정지됐다. 김 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풀뿌리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념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다음달 31일까지 이명흠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병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병직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는 27일 오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부정부패 없는 장성을 만들려면 청렴하면서도 장성을 잘 아는 인물이 군수가 되어 클린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 과정관리 중심의 군정과 친환경농업·축산업전문팀 신설 등을 통해 잘 사는 장성, 황룡강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 화순 예비후보 7명 탈당

○…민주당 화순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최영호 전 전남도의원과 도의원 경선 참여자인 문형호·임근우씨, 군의원 경선 참여자인 양황호·남미례·김연옥씨 등 7명의 화순지역 예비후보자들은 28일 오후 2시 화순읍 최 전 의원 사무실에서 1천여 지지당원들과 함께 탈당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
/장흥=김용기기자 kykim@